

하버드대 한국관의 50년 발자취 정리해

《하바드 한국학의 요람》 나와

하버드대 엔칭도서관의 한국관은 미국 내 한국학의 산실이다. 1951년 설립 후 현재까지 소장 장서만도 10만권을 넘고 있다. 이는 한국관이 1백만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엔칭도서관의 한 축으로, 또 미국 내 최대·최고의 동양학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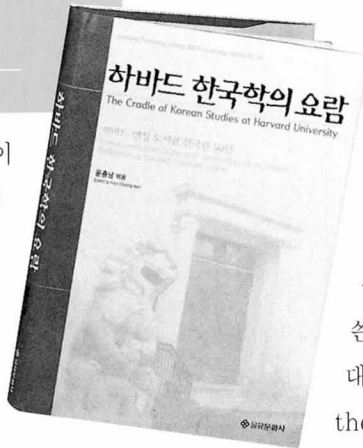
하버드대 엔칭도서관 한국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《하바드 한국학의 요람》은 하버드대 한국학의 요람으로서 한국관이 대동하고 성장해온 발자취를 정리했다.

하버드대 엔칭 도서관 한국관 윤충남 관장이 엮은 이 책은 한국관 초대 관장 김성하 선생의 업적을 살펴본 논문 1편과 한국관 소장 자료 연구 논문 2편, 그리고 그동안 이곳을 이용해 자신의 학문적 성장을 일궈낸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체험을 토대로 쓴 수필들로 구성됐다.

엮은이는 겨우 몇십 권의 책이 한국 도서로 분류되던 초창기부터 수만권의 장서로 당당한 위용을 갖춘 현재까지 한국관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. 그 과정에서 그는 “미국에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방대한 한국학 관련 도서관이라는 명성”이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

아니라, 그 속엔 “초대 한국관 관장 김성하 선생의 피땀 어린 생애가 담겨 있다”고 강조한다.

2부 ‘한국관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회상’은 하버드대 한국문학과 데이빗 맥켄 교수를 필두로 작고한 김성하 관장과 현재 엔칭도서관 관장 제임스 쉐 등의 글을 실었다. 3부 ‘하바드 엔칭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’은 한국관을 거쳐 간 연구자들이 “엔칭도서관, 책 수풀 사이에서 찾아낸 보람들”을 모아서 엮고, 4부는 한국관 소장 자료 연구 논문을 소개했다. 케네스 R. 로빈슨 교수가 쓴 신숙주의 《해동제국기》(엔칭도서관 사본)에 대한 연구 논문 〈Two Manuscript Copies of the Haedong Chegukki〉와 서울대 국문과 이상택 교수의 〈연경도서관본 한국고서설에 관한 일 연구〉가 그것이다. 이 교수의 논문은 연경도서관에



윤충남 엮음
물류문화사/A5신/296면/25,000원

소장된 한국 고전소설 원전자료의 목록 및 서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·소개한다. 또한 회귀본에 대한 개별적 연구 사례로 〈華山重逢記(화산중봉기)〉 및 〈宋婦人傳(송부인전)〉에 관한 연구 내용도 담고 있다.

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엔칭도서관 한국관의 역사와 하버드대에서 한국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다. 도서관 예산 삭감이 라는 국내의 부끄러운 현실을 돌아볼 때 한국관이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. —박옥순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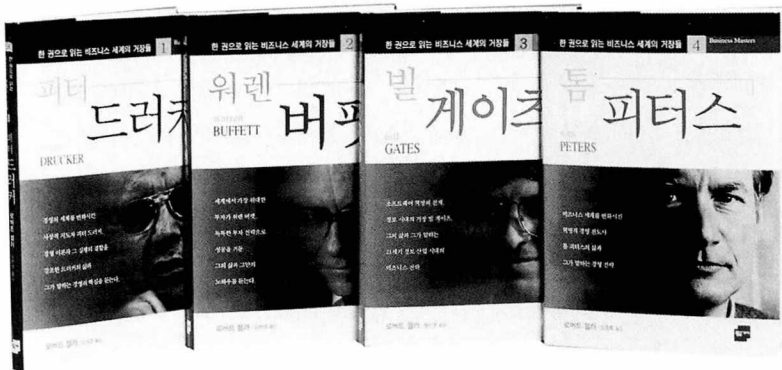
20세기 비즈니스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던 거장들의 삶과 경영철학, 전략들을 소개하는 〈한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세계의 거장들〉 시리즈 네권이 황금가지에서 나왔다. 이 시리즈는 영국의 경영잡지 《매니지먼트 투데이》의 초대편집장을 지낸 로버트 헬러가 자료조사와 현장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들이다.

이번 시리즈는 경영학을 학문의 위치로 자리매김한 20세기 경영철학의 사상적 지도자 피터 드러커부터 맥킨지컨설팅 출신의 경영 혁명가 톰 피터스, 아직도 경영 현장에 몸담고 있는 빌 게이츠,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등을 다루고 있다. 각각의 책들은 거장들의 일대기를 간략히

20세기 비즈니스 거장들의 삶 · 철학 · 경영전략담아 〈한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세계의 거장들〉 시리즈 출간돼

요약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한 미니 전기를 앞에 두고, 각 거장들의 경영철학과 핵심적인 경영전략을 소개한 본문과 그들의 비법·전략을 현재의 비즈니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 마스터클래스 등으로 구성됐다.

지은이는 또한 거장들의 초창기 전략과 경영방식을 다루면서 그들이 시대를 정확히 읽지 못해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 시행착오를 벗어나기 위해 행했던 특단의 조치들,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그들의 경제관, 경영철학의 모습도 쉽게 풀어서 보여준다. 이 시리즈의 장점은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비즈니스 초보자들이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. 14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명확하게 핵심만 간추린 점도 돋보인다. —김정근 기자



로버트 헬러 지음/형신희 외 옮김
황금가지/A5/140면 내외/각 8500원